

까치 밥

세상은 참으로 각박하고 메마르게 그것도 빠르게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어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허다하고, 버스로 한 두 정거장만 벗어나게 될 요량이면 우리는 쉽게 익명성(匿名性)에 감추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서로 모르는 대상들에게는 극히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고, 달리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결속의 끈을 단단히 부여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심 한 복판을 걷다보면 모두들 분주하게 제각기의 길을 무심히 걷고 있고, 지하철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대체로 휴대폰이나 MP4와 같은 이기(利器)의 노예가 되어 마치 이것들을 신주 받들듯 두 손에 모시고 있는 모습을 대할라치면 씩씩한 미소만을 머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들이 잘못 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 모습들이 각박한 세상살이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더듬어 볼 요량이면, 껍이나 착잡한 마음을 가눌 수 없게 됩니다. 복잡다단한 현 세대의 편린(片鱗)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잡다단한 이 세대는 필경 우리의 감성과 때로는 눈물까지 메마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따뜻하고, 정감이 있고, 온화하며, 평온한 것들을 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빠르고, 자극적이고, 쉽고, 재미있는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뒷집 지고 걸어가는 것보다 빠른 걸음을 재촉하는 것이 더욱 편하고, 책갈피를 넘기는 것보다 터치해서 스크롤(Scroll) 하는 것이 더욱 익숙하며, “두껍아 두껍아 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나지막한 소리보다는 차라리 자이로드롭(Gyro Drop)에서의 괴성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하 좀 지난 최근에 필자가 학내신문에 ‘쓰지 못하게 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입니다. 바쁘고 들뜬 기분을 뒤로 하고 편안하고 포근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접해 보기로 합니다. 이 글의 키워드는 ‘다정’(多情)과 ‘추억’(追憶)입니다. 그것도 잔잔하고 평안하며, 떠올릴수록 가슴이 푸근해지는 그런 넉넉함과 여유로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문학을 전공하시는 김선생님은 요즈음 무척 고민이 많다고 하셨다. 떠올려보면 하나같이 알록달록하고 고소한 소재들인데도, 이제는 모두가 아무 짝에 쓸모없는 깨진 창문틀 유리조각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나름 청춘의 때부터 그렇게 꿈꾸어오고 갈망해왔던 아동문학가로서의 지위를 얻자마자, 이처럼 한없는 자괴감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공황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밀단을 세 번이나 접고도 뒤가 질질 끌리던 새로 산 추석날의 절구통 하얀 바지, 그것도 하루걸러 두세 번 빨아 재깎인 터에, 열흘을 못 넘긴 채로 거뭇거뭇 시커먼 물이 배어 이내 머슴바지가 되어버렸던 기억...”

“코뽕배기 속에 흰 양말을 구겨 넣고도 헐거웠던 뚝 고무신발,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는커녕 며칠 새 장마통 뚝칸에 한 짝을 떠내려 보내고는
죽죽 울던 서러움...”

“술 찌꺼기에 신화당(사카린)을 버무려서, 동생과 몰래 소 우리 여물통 뒤
켜에서 킁킁대며 훔쳐 먹다, 그 기운을 못 이겨 이내 곧드레 널 부러진
채로 큰 고모에게 걸려 흠씬 두들겨 맞던 추억...”

“냠시바늘 미늘에 보리 꿰어 낚아 올린, 족히 두 뺨은 되어 보였던 잉어
한 마리, 그것도 곧죽에 실가시가 많아 입에 대지도 못하고, 이내 도야지
여물통에 퍼붓고 팔딱팔딱 튀어 올랐던 살아생전 발갱이를 떠올리곤 차마
뒤돌아 설 수 없었던 처절했던 미안함...”

“해 찬 듯 서울 가시나 얼굴을 석류나무 앞에 걸어두고, 팔딱팔딱 목젓소리를
숨죽여 가며, 이내 아침녘 해오름에 첫차 버스로 그 가시나를 떠나보내고,
등곳길에 골 페인 버스 타이어 발자국을 따라 이유 없는 그리움에 고개
떨구고 철썩철썩 걸어갔던...”

“상여 길에 방울소리 딸랑딸랑, “서른 서이 상두군아 발을 맞자 소리하소,
좁은 길도 널리 잡아 질도 없이라 넘어간다, 어허 어어어 어라넘자 넘화여”,
개울을 앞에 두고 노잣돈을 지퍼 저승길을 밝혀가던 아스름한 상여소리...”

“하나같이 풀어쓰자면 아리삼삼한 꿈결 같은 이야기인데도, 이런 이야기를
자신의 중학교 3학년 딸내미에게 사부작사부작 들려줄 때면, 어김없이
한바탕 가족 대반란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헐! 아빠! 이상한 얘기 하지마!”

“도대체 뭐가 뭘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거든!”

“모르긴 해도 이런 생각이 틀림없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도,
지금껏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혹여 나도 김선생님처럼 공황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오늘따라 유독 우리 중학교 3학년 딸내미가 무서워지는 이유가 왜일까?

그 또한 모를 일이다.”

성경의 기록에서도 이 같은 풋풋한 ‘다정’과 따사롭기 그지없는 ‘추억’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율법에 부합할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이고 눈에 띄는 기록을 중심으로 이 세대에 있어 새로운 교훈과 뜻 깊은 의미를 재발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신 23:24-25)

참으로 보고 또 보아도 다정한 기록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의 포도원이나 밭에서 누구든지 제한 없이 그곳의 소산물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취할 수 있었다”고 함은 시장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겹기 그지없는 이야기나, 지금에서 생각하면 턱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릇을 가지고 가서 포도열매를 취하여 담거나, 낫을 사용하여 소산물을 거두어 가는 것은 일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는 것과 그들이 경외하고 예배하여야 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뿐이시라는 공통의 신앙고백이 빚어낸 참으로 정겨운 미풍양속(美風良俗)적 규례가 아닐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같은 규례는 그들의 사회질서를 엄격히 유지하면서도

공동체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넉넉한 양속까지 이에 더하여 공의와 융통성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따뜻하고 정겨운 미풍양속적 규례는 대상이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고 심지어 동물[소(牛)]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스라엘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낭만적이고 감수성 풍부한 심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신 25:04)

고대 근동의 농경사회에서는 곡물을 탈곡할 때, 소로 하여금 곡식의 낱알을 떠는 기구를 끌게 하여 껍질을 벗겨내곤 하였습니다. 이때 소는 가끔 곡물의 피(皮)뿐만 아니라 곡식 또한 먹고는 했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사람들은 소의 입에 망(網)을 씌워 두고는 했습니다. 위 기록은 우리가 보는 그대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먹을 것을 허락하라는 규례입니다. 사람을 위해 죽을 힘 다해 그것도 평생을 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소의 입장은 둘째치더라도, 사람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들을 더 해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는 넉넉히 보아 기뻐하실 수 있는 정겨운 규례였다고 보입니다. 보고 또 보아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담겨진 사랑의 규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약에 이르러 사도 바울 또한 이상의 규례를 인용하고 있음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나”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밟기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고전 09:09-12)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딤후 05:18)

‘다정’과 ‘추억’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밭에 곡물을 죄다 건지 말고 남겨두어야 한다는 규례(신
24:19-21), 형제에게 돈이나 재물을 빌려준 경우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례(신 23:19), 이웃에게 꾸어줄 때 담보물[擔保物, 기록에서는 전집물(典執物)]
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규례(신 24:10-13), 품삯은 당일에는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는 규례(신 24:14-15), 감람나무를 떼 후에 또는 포도원의 포도를
떼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규례 또한 마찬가지로 넉넉하고도 정 깊은 사랑의 규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풍양속에도 이러한 다정한 관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날 필자가 간직하고 있는 다정에 관한 추억입니다. 그때 필자는
긴 대나무 끝에 Y자 철끈을 동여매어 높다란 감나무 위에 달린 홍시를

따려고 발버둥 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할아버지께서는 지게작대기를 들어 필자를 흠뻑 닦달하셨습니다. 그날은 지금도 필자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말 그대로 신나는 달밤이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는 몇 개 달린 홍시를 일컬어 ‘까치 밥’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갓 미물에 불과한 까치였음에도 우리와 한 마을에서 지내고 있는 정을 생각하고 까치를 위해 남겨두신 할아버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고구마 밭이랑도 모두 갈지는 않았습니다. 귀통이 한 켠은 그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해질녘 긴 그림자를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하룻길에 친구들과 재미삼아 작대기 하나로 밭 귀통이를 들쑤셔댈 요량이면 우리는 쉽게 고구마를 캘 수 있었습니다. 앞 이빨 두 개로 마치 쥐처럼 갉아먹던 고구마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켠에 남겨진 고구마 밭은 비단 우리들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길 가던 우체부, 종점 버스기사, 소먹이다 지친 선머슴, 땀감 앓은 지게를 개어둔 초로(初老) 모두의 소유였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이를 방언으로서 ‘이랑고수레’라고 하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해마다 김장철에 동네 아낙들의 품앗이 때면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가 배추 곁단을 심하다 싶게 뜯어내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뜯어낸 멀쩡한 곁단은 즉시 치우질 않고 하루해를 묵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그것으로 김장을 담글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였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정(情)이었고 추억(追憶)이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언젠가 필자의 학교에서 전 교직원들에게 이런저런 곡물을 꾸러미로

포장한 선물세트를 나누어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필자는 퇴근길에 이것을 그만 차위에 깜박 그대로 놔두고 집으로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아내의 채근에 부랴부랴 차위를 다시 찾아가 보았지만 그때는 이미 선물세트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지 오래였습니다.

그곳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있던 중 필자는 문득 ‘까치 밥’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참에 필자는 2kg짜리 쌀 포대 서너 개를 사다가 재활용 책상 하나를 후미진 곳 가로등 밑에 다가 가져다 두고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그곳을 가보니 영락없이 그 쌀 포대 또한 오간데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련만 하는 생각에 3일 간격으로 매번 그 수고로움을 자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책상위에는 필자의 것 말고도 대여섯 포대의 쌀이 필자의 그것과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비좁은 책상이 견뎌내기 힘들 정도로 책상 위는 그야말로 뽁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놔두고 가져가고 또 보태지고 이러한 순환의 순환을 거쳐 지금은 인근의 한 교회에서 도맡아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두가 필자 할아버지께서 손에 드셨던 그때 따가운 지계작대기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필자가 사는 가까운 주변에 KTX가 다닙니다. 그 다리 밑에 허름한 컨테이너 박스 2동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곳에서는 점심국수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 한 중국음식점에서는 주말마다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맛난 찜뽕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거기서 한 10여분 쯤 걸어가다 보면 외국인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는 매주말마다 떡메 치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들에게는 색다른 체험인지는 몰라도 그것도 용기에 가지런히 콩떡을 담아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볼 때, 절로

깊은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목욕탕 주인 할머니는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입욕료(入浴料)를 받지 않습니다. 노인들의 손을 붙잡고 따라나선 손자들도 이는 매한가지입니다.

여기서 화제를 극단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비록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지금까지 필자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그렇지만 기억하기 싫은 무정(無情)한 모습 하나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어느 한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지난 여러 겹의 옷을 답답하게 껴입고 있었던 부랑자 두 사람이 교회 앞 계단에 걸터 앉아있었습니다. 그것도 소주 2병을 아래계단에 올려놓고 한줌 멸치를 안주삼아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술 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대한 교회의 목사님이 느닷없이 그들을 치켜세우며 혼썰을 내고 있었습니다. 삿대질에 괴성이 난무하면서 끝내 몸싸움에 까지 이르렀고 소란스러움에 신고가 있었던지 이내 출동한 경찰차에 그들 셋은 모두 파출소로 향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필자 주위의 한 아주머니는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목사가 엇그제는 교회 문턱에 차를 세워둔 이웃과 주차시비로 말썽을 일으키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오늘은 이러한 문제로 또 시끌벅적하다면서 혀를 끝끝 차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철없는 목사 때문이라는 지탄은 둘째치더라도 한 아주머니가 돌아서면서 무심코 내뱉었던 한마디 혼잣말에 필자는 이내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말세다... 말세... 어쩌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 아주머니의 말대로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필자 또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쇠 망’, ‘까치 밥’, ‘이랑고수레’, ‘선물세트’, ‘떡메’ 등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차를 타고 오가다보면 볼 수 없었던 것들이, 걷다 보면 어느새 보이지 않았던 것들마저도 하나 둘씩 눈에 띄게 됩니다. 필자는 근자에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 후 한두 시간을 걷기에 소일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보지 못했던 상점도 보이고, 저마다 살아가는 모습도 보이며, 언제 그곳에 있었냐는 듯싶게 그간 보이지 않던 교회도 눈에 띄게 됩니다. 엇그제까지는 빵집이었는데 그곳에 느닷없이 커피전문점이 들어서 있고, 재래시장을 돌면서 여기도 장날이 있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모든 인근교회가 한결같이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는 텅텅 빈 주차장이 그도 쇠고랑으로 잠겨있고, 교회 문 앞에는 주차금지기둥 네댓 개도 세워져 있음은 물론, 요즘 유행하고 있는 보안구역 식별표시도 야광스티커로 정문 앞에 딱하니 큼지막하게 붙여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수요일과 주일저녁에도 그 양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가 파하게 되면 그 모습은 평일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교회의 간판자막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글귀가 담임목사의 이름과 함께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곧잘 들어보았습니다만 이러한 교회에 왜 ‘선데이 교회’라는 말이 붙여져 있지 않은지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필자가 이 지면에서 되짚어 두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이들이 뛰놀 수 있고, 누구도 거리낌 없이 주차할 수 있고, 이웃과 함께 차 한 잔 넉넉하게 마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새로 온 이웃이나 떠나가는 이웃이나 할 것 없이 친교의 장으로서 교회의 몸을 허락할 수 있었다면 위에서 한 아주머니의 충격적인 말은 듣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교회와 연합하여 떡메도 들어 보고, 외국어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물론 이웃과 함께 배워도 보며, 가끔은 이웃돕기를 위한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의 바자회도 열어 보고, 온 동네 함께 김장은 물론 국수나 찜뽕도 만들어 나누어도 보고, 작은 음악회를 통해 주민잔치도 열어도 보는 장으로서 교회의 몸을 허락할 수 있었다면 위에서 한 아주머니의 충격적인 말은 또 다시 듣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요? 목사의 것입니까? 교단의 것입니까? 소유가 누구 앞으로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목사 앞으로 입니까? 교단 앞으로 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한 지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이 글이 단초가 되어 하루속히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전 14:12)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골 01:24-25)